

화순 고인돌유적지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화순군은 지난달 29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유적지 내 보검재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북구 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무원, 군의회, 화순소방서, 임업인,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보검재 일원 임야 1.5ha에 산벚나무 2500그루를 심었다.

구북구 군수는 "산림 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라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순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3%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불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군수는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과 산불 예방 및 소각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과 일반인에게 반려 식물(묘목) 나눠주기를 진행하여 호응을 이끌었다.

/화순=주영현 기자

“에너지밸리 지속 성장”... 나주,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연다

오는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기업 투자유치 홍보·컨설팅 예정

나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Energy Valley)’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에너지산업 앵커(선도) 기업 확대 유치에 나선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와 광주 남부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산업 집적화 단지를 말한다.

나주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산업 중심지 나주의 장점을 적극 알리는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까지 두 번째로 지역을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확대 유치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첫날인 3일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로드쇼가 열린다.

둘째 날인 4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MVDC(중압직류 배전)를 주제로 세미나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투자유치 로드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태군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는 윤병태 시장의 ‘매

력 넘치는 나주 기업투자 환경’ 소개를 시작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MOU) 체결, 유관기관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 나주시와 한전의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공동 설명, 스타트업 10개사의 투자유치 데모데이 기업 홍보(IR)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나주 관내 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에너지산업 중심지 나주’를 알리는 공동홍보관도 운영된다.

나주시는 3~5일 사흘간 홍보관 운영 기간 동안 20개 부스에서 홍보·투자유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투자유치 로드쇼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에너지



나주시가 오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로드쇼 현장. /나주시 제공

산업 중심지 나주의 뛰어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면서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연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를 통해 에너지기업 4개사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 성과를 거뒀다.

/나주=허필수 기자

영광,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열기 ‘후끈’

오는 5일까지 11일간 진행

영광군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가 오는 5일까지 11일의 일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81개 중·고교 팀 1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조별예선, 결선토너먼트를 거쳐 준결승과 결승전으로 피날레를 맞이할 예정이다.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체육관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본 대회에서는 향후 한국농구의 미래를 쬐



인질 농구 꿈나무들의 혼신을 다한 열정에 힘입어 명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기는 한국중고농구연맹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서 시청과 응원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경기장에 의무요원과 청소요원 및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군을 방문한 선수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4월에 있을 전남 양대체전을 위한 이른바 “체육대회 봄”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 방문객들이 학생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뛰어난 볼거리와 먹거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선수들과 관람객의 뜨거운 열기가 전남 양대체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함평 ‘다문화 가족’ 출신 공무원 3명 채용

효율적 다문화 지원 정책 수립·시행

함평군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함평군은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인 장혜정(42.여), 이유미(34.여), 조아나(43.여)씨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채용, 가족행복과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창업 알선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강

화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가족 출신의 공무원 채용은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

담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준비 확대 지원

‘20만원→30만원’·나이도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준비비를 10만 원 확대하고 지원 나이도 상향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전라남도 지원사업

으로, 사업대상자들의 카드 이용 편리성 제고는 물론 카드발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충전카드 방식에서 대상자 소유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담양군은 준비비를 추가해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나이도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 수혜를 늘린다는 계획

이다. 확대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올해 5월경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지원 나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과 일상생활에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흥 하늘빛수목원 튜립축제 5일 개막

“가족과 행복한 추억 만들러 오세요”



장흥군은 하늘빛수목원이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제 11회 튜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최근에는 튜립을 비롯한 1000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꽃망울 터뜨려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주재용 대표는 “튜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수목원 전체를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며 “제 11회 튜립 축제에 오셔서 가족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